

엔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엔흐바야르 남바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꼭 1년 만에 서울에서 각하를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몽골 방문은 마치 고향집을 찾은 것처럼 친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형제의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또 이번에 오시는 길에는 훌륭한 게르
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께서는 몽골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몽
골은 수출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방·
개혁에 대한 각하의 의지와 추진력이 몽골 발전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각하께서 수립하신 '2021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몽골이 창기즈칸 시대의 영
광을 재현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선린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가 구체적인 성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과학기술·농업·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뜻 깊은 일입니다. 특히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산 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한다면 양국 간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활발한 국민 간 교류입니다. 지난해 3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몽골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 근로자는 지금 3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몽골의 국민작가 차드라발 로도이담바의 「맑은 타미르 강」이 한국어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의 화재현장에서 네 사람의 몽골인이 열한 명의 동료를 구한 미담은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역량 있는 몽골 국민들이 더 많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와 한국 정부는 한국에 와 있는 몽골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몽골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